

지역기업·대학,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 거둔다

광주은행·NH농협은행 등 5곳
8천500만 상당 입장권 구매약정
임직원 복지·소외계층 지원 활용



전남문화재단은 5일 전남도청에서 지역기업, 대학 등과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입장권 구매약정식을 개최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문화재단(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은 5일 전남도청 VIP실에서 지역 주요 기업, 대학 등과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입장권 구매약정식을 개최했다.

약정식에는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 류종필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 장종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이사, 박시형 국립목포대학교 교학부총장 등 5개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총 8천500만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를 약정했다.

구매된 입장권은 임직원 복지, 고객 환원, 지역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입장권 구매를 통해 광주은행과 해양에

너지는 전남·광주 간 문화적 연대와 예술 후원의 모범을 보여줬다.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금융기관으로, 전남개발공사

는 지역 공공기관으로 문화예술 지원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국립목포대학교는 학생들의 전시 관람과 학

내 홍보 등 실질적 참여를 통해 지역 대학의 문화적 역할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명칭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문화예술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실정은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힘”이라며 “이번 약정을 통해 함께해 준 기관 모두가 전남과 광주를 대표하는 메세나 기업으로서 지역 예술 발전에 의미 있는 동행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관람객에게는 감동을, 지역에는 활력을 전하는 축제가 되도록 남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을 주제로 오는 30일부터 10월31일까지 목포·진도·해남 등 전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기존의 전시와는 차별화된 현대 수목의 동시대적 해석과 예술적 확장성을 보여주는 전시와 함께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가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영사원기자

도·도의회·대학, 전남 국립의대 설립 전략 모색

국정 과제 반영·정책 논리 개발 협력
정부 설득·전략 수립 등 전방위 활동

전남도는 5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전남도의회 ‘전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 국립의대 설립 전략·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지난달 출범한 특별위원회는 전남도의회가 2027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자 구성·설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민호·최선국 공동위원장과 박현숙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전남 국립의대 필요성, 새정부 대선 공약 반영 현황,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노력,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 추진 사항, 최근 정부 주요동향 등을 공유했다.

특히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특별위원회와 함께 전략적으로 추진해나갈 국회·정부 건의 방안, 정책 논리 공동개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의대 신설 촉구 및 홍보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신민호·최선국 공동위원장과 박현숙 부위원장은 “의회 차원의 대응 기구로서 앞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남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정부 설득, 전략 수립, 대외 홍보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승태 순천대 대외협력부총장과 유천 목포대 의대설립추진 부단장은 “앞으로 지역 국립대학으로서 국립의대 유치가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실무적 준비와 정책적 대응 등 모든 역량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종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이번에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도민의 34년 염원인 국립의대 설립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의회 대학과 함께 자주 만나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사원기자

광주시, 전국 첫 ‘손자녀 돌보미’ 확대
이달부터 2자녀 이상·월 400세대 지원

광주시는 5일 “전국 최초로 선보인 ‘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사업’을 8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취학 아동(6세 이하)을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해 맞벌이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광주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를 거쳐 지원 대상과 돌봄제공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 맞벌이가정에 한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월 지원세대를 기존 200세대에서 400세대로 두 배 확대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또는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 확대는 가족 내 돌봄자에게도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돌봄정책의 시작”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 모두가 행복한 광주 실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아동공동생활가정 현장 중심 지원체계 마련해야”

광주시의회 정책 토론회

광주시의회 정다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북구2)은 5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4년 제정된 ‘광주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가 2016년 3월 ‘광주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제정 이후의 상황을 점검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의 발전 방향과 현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정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상윤 교문

(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이 발제를 맡았다. 이 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윤미경 광주시청 아동청소년과장, 이준섭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이상윤 교문은 “그룹홈은 199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로 28년, 법제화 이후로도 21년이 지났지만 제도적 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며 “입소 아동의 특성 변화, 자립지원의 구조적 한계,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다운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관련 정책 개선의 기초가 되고 그룹홈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선진적인 보호 방식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는 9월10일 시의회에서 개최될 그룹홈 지원 방안 포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광주시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변은진기자

안전한 광주전남



함께 만든 교통안전

교통사고 없는 세상을 위해
운전자와 함께하는 안전벨트 교통안전 캠페인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무사고 당위성

운전할 때, **안·전·벨**을 지키면 사고가 안나고
나의 안전과 우리 지역을 위한 최고의 봉사입니다.

※ 안전벨트는 안전거리 준수, 전방주시 유지, 안전벨트 착용하고 운전하는 의미입니다.

교통사고 심각성

- 교통사고 건수**
교통사고 171,475건 발생
- 사망자**
교통사고 사망자 3,877명 발생
(하루 평균 11명 사망)
- 부상자**
교통사고 부상자 272,527명 발생
(부상비용: 158.9%)

※ 광주·전남지역 교통사고 현황 (최근 10년 기준)

무사고 운전 방법

- 안전거리 확보하기**
* 속도별 안전거리
100km/h 주행 시, 100m 이상 시간거리 유지
- 전방주시 유지하기**
전방주시 3초 안 할 경우
100km/h 주행 시,
83.3m 눈길과 주황과 빨강
- 안전벨트 착용하기**
광주·전남 최근 10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 안전벨트 미착용

주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참여기관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전라남도
Jeollanamdo

광주경찰청
Gwangju Metropolitan Police Agency

전라남도경찰청
Jeonnam Provincial Police